

진안로컬푸드 매출 200억원 돌파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추진

매출 90% 육박하는 금액 농가 소득으로 환원돼 농가 소득 향상 역할 '특독'

진안군은 8일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전주시 호성동 소재)의 누적 매출이 200억을 돌파하며 관내 농가 소득향상의 든든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중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이 200억원을 돌파했다.

2019년 1월에 개장한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은 첫째해 30억원, 2020년 60억원, 2021년에는 70억원 매출을 달성하며 동일 상권 대형기업과 식자재마트와의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 초까지 매출이 40억원을 넘기면서 누적 매출 2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중 매출의 90%에 육박하는 금액이 농

가의 소득으로 환원돼 농가 소득 향상에도 특목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을 견인한 품목은 단연 청정 진안고원에서 사육한 고품질 축산물로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간유통 없이 관내 축산농가로부터 직접 납품을 받은 덕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또한 달걀, 잡곡, 청과 등의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크게 향상됐다.

진안군은 꾸준한 성장세의 비결로 소비자와의 돈독한 신뢰관계 구축을 꼽는다.

장마철과 혹서기 중 시장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물량부족을 겪음에도 가격 변동 없이 1천원 상추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은 이 밖에도 순회 수업을 강화해 관내 중소 농가의 로컬푸드 납품 참여를 확대하고, 역량강화 교육·직거래장터·소비자 체험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소비자와의 신뢰구축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지난 3년여 동안의 우리 진안군 로컬푸드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 매출 200억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로컬푸드 활성화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우리 진안군 농가와 군민을 위한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지적 공문서 안전한 보존관리 기대

무주군은 종이로 된 영구보존 지적측량 결과도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적측량 결과도는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측량 관련 사항을 기록한 도면으로 토지소유자간 경계 분쟁이 발생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적기록물이다.

군은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해 매년 측량결과도에 대한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만4,322장에 측량결과도 서버 전산화를 통해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군은 2022년 상반기에 생산된 지적측량 결과도에 대해 누구나 식별이 용이한 고해상도 칼라 이미지 파일로 스캔 및 색인 목록을 작성했다. 작업 과정에서 지적문서 분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서고에서 작업을 실시했다.

전산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문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기도 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최원희



무주군 민원봉사과

팀장은 "DB를 활용한 신속한 자료검색으로 행정업무의 고도화가 되면서, 신속·정확한 민원 응대로 고품질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종이기반으로 보관되고 있는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하게 되면서 재난 등으로 인한 지적문서를 소실할 경우 복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자체 DB 구축으로 정밀도 확보와 함께 예산절감과 과거 측량 이력의 신속한 확인, 그리고 정확한 지적측량이 가능하며,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장마철 이후 이삭도열병 예방 철저

사전 방제 위한 적극 홍보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장마철 이후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이삭도열병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삭도열병 사전방제를 위해 일제출장 진행 및 리플릿 배부와 엠프방송 등 활발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통해 예방관리에 나섰다.

이삭도열병은 이삭이 나오기 전에 방제하면 높은 방제효과를 보인 반면 이삭이 나온 후 방제하면 효과가 낮기 때문에 이삭 나오기 전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비가 자주 오고 낮은 기온이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거름기가 많은 논에서 쉽게 발생한다. 도열병에 약한 품종들은 기온이 높아도 국지성 강우로 인한



다습한 환경, 일조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도열병이 발생할 수 있다.

병이 심해지면 잎이 잿빛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는다. 또한, 마디도열병, 목도열병 및 이삭도열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지

나치게 많은 질소비료를 사용하거나 논두렁의 배령이와 강아지풀에서 발생한 잡초 도열병이 벼로 전염될 수 있어 논 주변 잡초 방제도 철저하게 요구된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벼 잎에 회색 방추형의 반점이 보이는 도열병 발생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팀 이용기 팀장은 "적기방제를 놓치게 되면 이삭무, 이삭으로 도열병이 확산되어 수확량이 감소 된다"며, "정밀한 병해충예찰로 정확한 방제정보를 제공해 이삭도열병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구룡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

진안군은 공중위생의 향상 및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 구룡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은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해 금당 및 세동마을의 하수도 정비를 추진하며 지난 2020년 확보한 사업비 총 49억원(국비 34, 지방비 15)을 들여 시행한다.

이번 공사는 기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들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도를 신설하고, 연결하는 환경기초 시설사업으로 하수처리하수처리시설 20톤/일, 하수관로 3.5km, 배수설비 48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군은 앞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실시설계, 재원협, 설치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8월 중 사업 착

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사업 착공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상전면 세동마을에서 마을 주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추진으로 보행 및 차량통행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이철민 상하수도과장은 "용담호와 인접해 있는 상전면 구룡리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시행돼 위생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깨끗한 용담호 수질보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변 구역에 위치한 마을의 공중위생과 용담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 군정 주요현안점검 회의 주재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는 8일 회의실에서 군정 주요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추진 효율화 방안과 레드푸드용 복합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별 대책을 수립했다.

장수군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1단계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했으며, 레드푸드용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기반조성 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만큼 주변 경관조성과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종훈 부군수는 "민선8기 장수군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유의미한 성과를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서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목적의 호를 위한 사업은 무의미하게 끝나거나 중간에 좌초돼 결국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낭비가 초래되는 만큼 낭비 없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반딧불축제 대비 도로변 제초작업 실시

무주군이 오는 27일부터 성황리에 열릴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에 대비해 도로변 환경 정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군은 작업 인력을 투입해 라제동문~구천동보건의료소(위임국도 37호), 부남사거리~상하삼거리~덕유산 IC(지방도 49호~지방도 635호), 무풍~설천(군도15호), 군도와 위임국도의 잡목제거와 함께 예초작업을 서둘러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군은 삼도봉터널~무풍면 도마(지방도 1089호), 무풍사거리~한제~상오정 삼거리(지방도 1089호~군도11호) 등 한 도로변 제초와 나무의 웃자란 가지와 잎을 정리 해주는 정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 박진규 팀장은 "국내 최대 생태 축제인 반딧불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무주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드림스타트 아동 62명 무료 건강검진 실시

장수군 드림스타트팀은 8일 장수군보건의료원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62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건강검진은 드림스타트 만 7세 이상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 것으로 신체계측, X선 검사 등 기본진료 외 16개 항목의 검진이 이뤄졌다.

문진표를 기초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폐결핵, 폐렴 등 각종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협력 의료기관 등을 연계해 재검사나 치료를 받도록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발달과 건강상태를 집중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